

양성평등교육 어떻게 시작할까?

- 주 제 : 교육공동체가 함께 세우는 양성평등교육
- 내 용 : 단순히 성평등지향의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성고정관념, 성편견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방법 이 해하기



활동 내용

- ❖ 수업열기 양성평등 교육 어떻게 시작하지?
- ❖ 활동 1 학교에서 양성평등 교육 이렇게 고민합니다.
- ❖ 활동 2 가정에서 양성평등 교육 이렇게 함께합니다.
- ❖ 활동 3 나다움 책장을 소개합니다!
- ❖ 마무리
모두가 함께 '나다운 나'를 찾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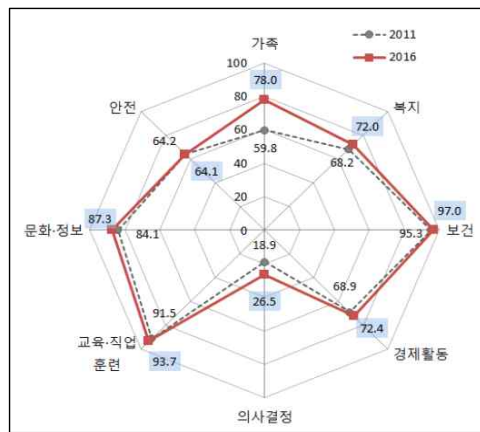
I 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 이렇게 고민합니다.

헌법 제 11조에서는 자연권으로 인정한 기본권 중 <평등권>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Why!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는 강력한 리더십, 도전정신, 섬세함과 유연성 등을 지닌 양성성을 소유한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성성이란 남성(andro)과 여성(gyn)이 합성된 개념으로 하나의 유기체 내에서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공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와 요구하는 인재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활 속에서 여전히 남자다운 것과 여자다운 것을 요구하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포럼(WEF)가 발표한 성 격차 보고서 2016' Global Gender Gap Report 2016)¹⁾에서 우리나라는 성격차 지수가 0.649로 144개 조사대상국 중 116위에 머물렀으며 한국 양성평등 보고서²⁾에 따르면 분야별 성평등 수준에서 의사결정 영역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I-1] 분야별 성평등 수준

How?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양성평등교육이라고 하면 단순히 성평등한 교육을 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성평등 사회는 오직 여성만을 위한 것도 남성에게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여’ 모두가 민주적이고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남자와 여자는 평등해’라고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특수성을 이해하여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남자와 여자라는 편견에 갇혀 가장 나다운 나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지하는 것이 지금의 양성평등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이에 학생들이 사회적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성 역할을 학습하는 학교 생활을 통해 학생들이 진정한 자신을 찾아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학교는 교육공동체 모두와 함께 양성평등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가장 가치로운 나’로 자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양성평등한 세상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1)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6' (Global Gender Gap Report 2016). 성 격차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더 평등함.
 2)여성가족부(2017).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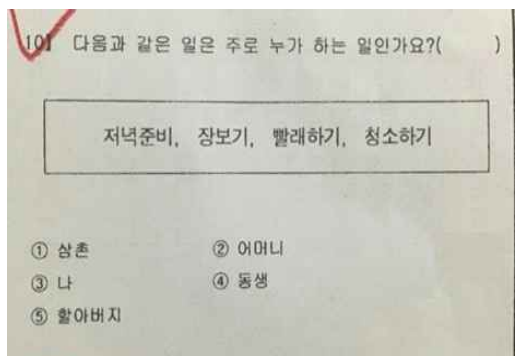


1 학교에서 양성평등문화 형성을 위한 언어행동개선

양성평등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문화 속에 녹아 있는 성편견, 성고정관념이 무엇 인지를 찾아보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문화와 생각을 드러내는 척 도입니다. 우리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교실에서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쉽게 성편견과 성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와 문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학교 속 녹아 있는 성편견?

2018학년도 1학기 모 초등학교 2학기 시험문제에 서는 성편견적인 문항이 출제되어 논란이 되기도 하 였습니다. 해당 문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저녁준 비, 장보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등의 일은 주로 누 가 하는 것인가요?’라는 것이었고 정답은 ‘어머니’ 였습니다.



[사진] 2018년 1학기 초등학교 시험문제= 서울시 제공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성편견을 내포하고 있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양육은 어머니의 몫’이라는 편견을 포함한 부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녹색어머니회’, ‘학년 어머니회’ 등이 있습니다. 사실 맞벌이부부 비율 도 높아지고 있으며 가정의 모습도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학교의 교육활동 참여 양상도 다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녹색어머니회’ 대신에 ‘교통봉사단’으로 ‘학년 어머니회’ 대신에 ‘교육보호자모임’이라는 단어로 대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학교 안내장에서도 ‘학부모’라는 문구도 ‘학생교육보호자’로 조금씩 바꾸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교실에서 또한 쉽게 ‘안내장 어머니께 갖다드려.’라는 말 대신 ‘안내장 가족에게 갖다드려.’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업군의 특성상 학교에서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아 성편견을 포 함한 문장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글자를 써볼까?’, ‘예쁘게 앉아보자.’ ‘줄을 예쁘게 서보자.’와 같은 문장들을 교사들이 무의식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글씨를 또 박또박 서볼까’,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아보자.’, ‘줄을 바르게 서보자.’와 같이 바꿔서 쓰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듬직한~’, ‘대범한~’ 남학생, ‘조신한~’, ‘예쁜’, 여학생 등 성별로 뻘한 수식어 보다는 개인 특성을 반영한 수식어를 사용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해 2018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학생의 날(11.3)’을 앞두고 학교에서 성차별 언어와 행동을 바꿔보는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_학교편’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참여 캠페인으로 528명의 시민에게 738건의 의견을 받고 국어·여성 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영향력이 높은 학교 내 개선해야 할 성차별 만과 행동 5건을 선정해 시민과 함께 바꿔보자고 제안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생활 성차별 언어·행동 바꾸기 Top 5

1. 성별로 뻥한 수식어는 싫어요, 개인 특성 반영한 수식어 사용!
2. 고정된 편견을 강요하지 마세요! 여학생, 남학생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3. ‘공부 못해도~’ 시리즈 하지 마세요! 차라리 공부하라고 하세요!
4. 교복, 출석번호 등 정해진 학교생활, 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5.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교훈·급훈은 이제 안녕, 성평등하게 써주세요!

[출처] [한국강사신문] '듬직한 남학생·조신한 여학생~'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학교편'|작성자 톡톡톡

<p>준해, 유아, 성동, 유아가 성평등 생활을 만든다.</p> <p>I-SEOUL U</p> <p>#서울시성평등생활사전_학교편 [시민 제안 이벤트]</p>  <p>서울시여성가족재단</p>	<p>준해, 유아, 성동, 유아가 성평등 생활을 만든다. #서울시성평등생활사전_학교편</p> <p>여학생은 꼭 지어만 입어야 하나? 불편해</p> <p>남자지도 너무 더워</p>  <p>남자, 여자로 구분된 교복은 서로 너무 불편해</p>	<p>준해, 유아, 성동, 유아가 성평등 생활을 만든다. #서울시성평등생활사전_학교편</p> <p>남자니까, 무거운 건 내가 들어야 하나?</p> <p>내가 같이 변명 들면, 친구들이 놀림까?</p>  <p>'여학생다움' '남학생다움' 때문에 서로가 불편한 상황</p>
<p>준해, 유아, 성동, 유아가 성평등 생활을 만든다. #서울시성평등생활사전_학교편</p>  <p>왜 교과서나 참고서에 등장하는 여자는 대부분 앞치마를 두르고, 남자는 넥타이를 맨 전문가처럼 보일까?</p>	<p>준해, 유아, 성동, 유아가 성평등 생활을 만든다. #서울시성평등생활사전_학교편</p> <p>이런건 바꿔야 하는거 안장? 어, 인정!</p>  <p>성차별적 학교생활 이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p>	<p>준해, 유아, 성동, 유아가 성평등 생활을 만든다. #서울시성평등생활사전_학교편</p> <p>I-SEOUL U</p> <p>10월 18일(목)까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일반회원>시민회00>의견조사)</p> <p>바로 참여!</p> <p>모바일 문상 5,000원까지 특별 가능! (문상상품권)</p> <p>* 의견들 제안해주신 분을 중 500명을 추첨으로 선정해 모바일 기부금(5,000원)을 보내드립니다.</p> <p>newsletter@seoulwomen.or.kr ☎ 02-810-5045</p> <p>서울시여성가족재단</p>

또한 요즘은 다양한 변화의 시도가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많은 출석번호의 문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5년 이미 출석번호가 특정 성별로 시작하는 것에 성차별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학교에서는 이에 작년엔 출석번호 1번을 추첨을 통해 여학생을 시작으로 바꾸어 가며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출석번호의 문제는 어느 성별이 먼저 1번을 차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별로 번호가 나누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흑자는 출석 번호대로 '남자 한줄, 여자 한줄'로 나누는 것이 별 문제 되지 않는다고 유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석번호로 자연스럽게 남녀를 구분하는 것은 학생들의 성 인식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 반을 '친구'라는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명확히 선을 그어 인식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성역할을 조금씩 인식해나가기 때문입니다. 예전보다 한 반의 학생 수도 많이 줄었으며 학반을 반으로 나누어야 할 상황이 많지 않다면 굳이 번호를 나누어서 정해야만 할까요?

II 가정에서 양성평등 교육 이렇게 합니다.

가정에서는 양성평등 교육을 어떻게 함께 하면 좋을까요? 학생들이 성인지각수성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가정에서는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육보호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놀이 문화로 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다 보면 무심코 던진 대화에서 성차별 의식과 성별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가 울긴 왜 울어?’, ‘여자아이가 조신하지 못하게 그게 뭐야?’와 같은 말은 성 역할을 제한하고 성 불평등을 조장하는 말입니다. 또한 학생이 원하는 장난감이 아니라 성별에 기대되는 장난감을 먼저 가족이 사주는 것은 아닌지도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여자 아이가 총놀이를 왜 하니?’, ‘남자 아이가 무슨 인형놀이야?’라고 먼저 가족이 성역할을 고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봅니다. 장난감을 사줄 때에도 기질과 성향을 먼저 살펴보고 장난감과 놀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합니다.

2) 성별에 따라 외모 평가도! 칭찬!도 하지 않습니다.

성편견과 성고정관념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여자애가 왜 바지만 입어?’, ‘남자가 이렇게 말라서 어떻게 하니?’와 같이 성차별적 인식을 강화시키는 말은 줄이도록 합니다.

3) 가정에서 집안일은 돕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전히 집안일은 엄마가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학생들에게도 가족 구성원에게도 강한 편견 중 하나입니다. 집안일은 누군가의 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시간과 형편에 따라 나누어 하는 것이며 함께 계획을 세워 존중하며 실천하는 모습을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가정에서 쉽게 하는 비양성평등적 언어행동들과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을 조사하여 간단한 양성평등 언어행동개선 가정용 매뉴얼로 구성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가정에서 참여하여 다양한 비양성평등적 언어행동들을 조사 분석 할 수 있었으며 대체할 수 있는 언어행동들을 예시 자료로 만들어 제공하여 함께 실천할 것을 함께 약속하였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의 변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양성평등하게 바꾸는 것은 아닐까요?

양성평등 아스피린 언어행동개선 가정용 매뉴얼	
흔히 하는 비양성평등 언어행동 남자는 남자답게 누나니까 네가 양보해~ (할머니께서)여학생이 조신하지 못하게. 여자아이 방이 이게 뭐니? 아빠 달아서 짹짹하네. 누구 달아서 예뻐? 여자애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니? 남자가 말이야! 이 정도도 못 참니? 여자말을 들으면~	양성평등에 도움이 되는 언어행동 나는 나답게 네가 먼저 양보해줄래? 남자든, 여자든 너는 소중한 방을 정리해볼까? 자신감 있는 네가 멋져 열심히 하는 네가 자랑스러워 좀 조용히 이야기해줄래? 좀 더 참아보자. 이런말은 하지 않아요

Ⅲ 나다음 책을 소개합니다

양성평등교육을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좋은 양성평등교육 책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성편견과 성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가장 나다운 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책을 권하는 것도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나다음 책장’을 소개합니다.

1) 나다음, 나다음어린이책이란?

나다음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은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 아닌 ‘나다음’을 배우고 찾아가도록 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롯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올해 1월부터 학계, 출판계 교육계 등 전문가로 도서위원회를 구성해 나다음의 핵심가치와 도서선정기준, 선정도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나다음어린이책에서 추구하는 3가지 핵심가치는 자기긍정, 다양성, 공존입니다.



성인지감수성을 바탕으로 나와 남을 긍정하고 다양성과 공존을 지향하는 어린이책이 나다음어린이책입니다. 총 134권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이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그 목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다음을 질문하는 어린이책을 찾아라!



말라깽이 챔피언

책이 쿠르츨 글·그림 / 권지현 옮김 / 씨드북 / 2016

이민자 가정의 남자 형제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는 소녀는 권투를 배우기 시작하고, 가족의 편견과 신체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스스로 질문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용기와 거기서부터 이루어낸 성취가 멋지게 그려진 그림책. 가느다란 팔을 가진 권투선수라는 설정만으로도 소녀 재현의 새로운 형식을 볼 수 있게 한다.

#주체성 #성별 고정관념 #가족 #권투 #운동 #자존감 #몸



말나니 공주처럼

이금아 글 / 고정순 그림 / 시계질 / 2019

흔한 공주 왕자 이야기를 통쾌하게 반전시켰다. 영두 공주와 그의 친구인 자두의 캐릭터가 매력적이며 믿음직하고 사랑스럽다. 공주도 왕자도, 왕도 백성도, 남자도 여자도 아닌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작가는, 어린이 독자가 바람을 가르며 말을 타고 달리는 영두와 자두처럼 답답한 편견의 세계를 박차고 나올 수 있도록 응원한다.

#주체성 #연대 #자존감 #공주 #왕자 #친구

자기긍정



바다를 존중하세요

키메라 카르미나타 글 / 파라아키이라 다조르츠 그림 / 김현주 옮김 / 책속물고기 / 2018

“나는 언제나 물이 좋았어요.” 바다를 탐험하고 연구한 해양과학자이자 환경운동가 실비아 얼의 어린시절과 성장과정을 1인칭으로 서술한 인물이야기이다. 미지의 세계인 바다를 탐험하는 것보다 여자와 거친 바다는 어울리는 않는다는 편견에 맞서는 일이 더 어려웠던 실비아 얼의 삶을 통해 용기와 호기심, 자연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을 배울 수 있다.

#주체성 #일의 세계 #성별 고정관념 #해양학자 #바다 #잠수 #환경 #실비아 얼



발명가 로지의 빛나는 실패작

민드레아 비티 글 / 데이비드 루베츠 그림 / 김혜진 옮김 / 천개의바람 / 2015

로지는 발명가가 꿈인 여자아이다. 삼촌을 위해 만든 발명품이 비웃음을 자아내자 의기소침해져서 발명품을 숨기기로 한다. 또 이모할머니를 위해 만든 비행기가 얼마 날지 못하고 떨어지자 크게 실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모할머니는 비행기가 떨어지기 전에 하늘을 날지 않았냐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실패하며 성장하게 마련인 아이들,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양육자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성별 고정관념 #주체성 #일의 세계 #발명 #친척 #비행기 #용기 #격려



발·춤

정인하 글·그림 / 고래뿔속 / 2017

세탁, 택배, 거리 청소, 음식 배달, 호떡 만들기, 구두 닦기, 물건 나르기, 패밀리, 빌딩 청소, 교통정리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생계를 위해 일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마치 춤추는 것처럼 멋지게 표현한다. 여자도 남자와 같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구석구석에서 여러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경쾌하고 아름답게 보여준다.

#성별 고정관념 #일의 세계 #사회적 인정 #노동 #춤 #웃 #직업



사랑이 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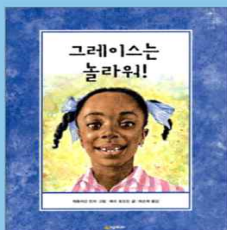
진현민 글 / 최인호 그림 / 창비 / 2018

어린이의 사랑이라는, 평범한 듯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주제에 도전했고, 성공했다. 우정과 사랑 사이, 짝사랑, 삼각관계 등 연애의 단골 구도가 알팍하거나 반하게 보이지 않는 까닭은 사랑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어린이들의 태도가 친지하기 때문이다.

#주체성 #성별 고정관념 #연애 #사랑 #우정 #연애

자기긍정 | 주체성

그 레 이스는 놀 라 워!



메리 호프만 글
캐롤라인 빈치 그림
사공주니어, 2005

연기하며 노는 걸 좋아하는 그레이스는 '피터 팬' 공연에서 주인공 피터 팬 역할을 하고 싶어요. 흑인 여자아이는 피터 팬이 될 수 없다는 편견에 맞서 그레이스는 연기 심사를 통해 피터 팬으로 당당히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연극 공연은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넌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될 수 있어.”
할머니의 이 말은 책의 주제를 잘 드러냅니다. 피부색이나 성별 때문에 차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FOLLOWING STORIES, FINDING YOURSELF

자기긍정 | 주체성

스 파 이 더 맨 가 방 을 맨 아이



조르지아 베올리 글
마시밀리아노 디 라우로 그림
머스트비, 2016

여성 어린이가 스파이더맨 가방을 메는 일이 낯설게 여겨지는 세상이라면 교과서 비슷한 이러한 이야기 역시 여전히 필요합니다. 장난감 구매, 놀이, 운동을 비롯한 여러 일상에서 어린이가 성별에 따라 달리 양육되는 상황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짚어줍니다.

FOLLOWING STORIES, FINDING YOURSELF

■ 나다움책 목록: <http://nadaumchildren.org/221540085071>

(※태화초등학교에 미리 연락을 주시고 방문해주시면 나다움책장을 소개해드립니다.)

2) 어른들을 위한 양성평등 책은?

양성평등교육을 시작하는 학교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성편견과 성고정관념은 의외로 너무 우리의 행동과 언어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성편견과 성고정관념 자체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성편견과 성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는 함께 읽고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또는 교실, 가정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실천해보고 싶은 선생님들과 교육보호자들과 함께 추천하는 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p>예민함을 가르칩니다</p>	<p>양성평등에 반대한다</p>	<p>맨박스-남자다움에 갇힌 남자들</p>

※사진출처: yes24

함께 책을 읽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함께 영화와 영상을 시청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 거리의 만찬-어린이날 특집 아이들이 묻습니다.
(초등젠더교육연구회 아웃박스 선생님들의 양성평등교육 이야기)
- 와즈다 (2012) (감독: 하이파 알 만수르, 출연: 와드 모하메드 외)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인권 관련 영화)
- 세상을 바꾼 변호인: 루스베이더 긴즈 버그 실화 (2019) (감독: 미미 레더)
(성차별 뿌리가 깊은 세상을 바꾸려는 한 변호사의 이야기)

양성평등교육은 ‘나는 나야! 넌 그대로 충분해! 남자답게, 여자답게가 아니라 나답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신을 어느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가장 나다운 나를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공동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자료출처:

1.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1031000282>
2. 예민함을 가르칩니다(2018). 서해문집, 초등젠더교육연구회 아웃박스, 구예형, 김수진, 이선희, 이에원, 황고운
3. '여·남학생답게~' 그만! 서울시, 학교 내 성차별 언어·행동 바꾸기 보도자료 (http://www.seoulwomen.or.kr/c3/sub3_1_view.jsp?regNo=1540948984373)
4. <https://cafe.naver.com/byungs94/5516725>